

# 전남·경북 손잡고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상생 다진다

### 영·호남 화합 한마당 축제, 24~26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서 열려 예술인 상생콘서트·청년 작가 아트전 등 다양...관광 홍보 부스 운영도

영·호남이 상생의 힘을 모으기 위한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 행사에 들어갔다.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문화예술로 소통·화합하고 상생과 협력의 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의 대통합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취지를 담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순차 개최하고 있다.

행사 기간 영·호남 예술인 상생콘서트, 힐링 미니 콘서트, 미니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청년 작가 아트(ART)전, 신(新) 화개장터(농수특산물 판매), 영호남 관광 홍보 라운지 등 풍성한 즐길거리·볼거리도 마련된다.

24일 열린 개막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 영호남 향유 차담회, 영호남 청년작가 아트전, 농수특산물 판매 코너, 전남·경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주·관광 홍보 부스 등을 둘러보며 소통과 화합 의지를 다졌다.

전통주 홍보부스의 경우 '법(法)이 다른 남도 종가의 술'을 주제로 학봉종가 송업복려주, 하심당가 석탄주 등 종가 전승주를 포함한 10종의 전통주와 음식이 선을 보였다.

개막식은 두 지역의 농협과 예총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전달식과 영호남 청소년 댄스 공연팀의 콜라보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주제공연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방의 힘으로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의미를 뮤지컬 형식의 공연이 펼쳐져 호평을 받았다.

었다.

영호남 재능있는 청년 작가 64명의 작품도 전시됐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온 향우들을 위한 영호남 향우 라운지 공간도 조성됐다.

부대 행사로 전국 종가의 43%를 차지하는 전남·경북지역의 특색을 살린 '제 8회 전남종가 학술 심포지엄'도 '기록으로 보는 남도 종가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종가 음식문화 기록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한 기초발표(백두현 경북대 명예교수), '기록과 실체를 통해 본 전남 종가 음식문화 계승 현황 및 과제'(김홍렬 청주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 종가음식문화 전승 체계에 대한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영호남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는 전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24일 오후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 신화개장터 특산물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홍콩·대만서 652만 달러 수출 협약 성과

### 10개 사 시장개척단 상담회 개최 전북죽·유아과자·화장품 등 인기

전남도가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수출 유망기업 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대만과 홍콩에 10개 기업을 시장개척단으로 파견, 652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

지난 21일까지 4박 5일간 추진한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7개 식품 기업과 3개의 공산품 기업이 참여했다. 파견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상담회 개최 한 달 전 잠재 구매자들에게 기업 제품 제공과 매칭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또 상담회 전 중국 인플루언서(왕홍) 영상 방송을 제작, 대만 및 홍콩에서 바이어와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번 상담회에선 도내 중소기업 10개와 현지 구매자 42개 기업 등 총 52개 기업이 참가해 1대 1 상담을 진행했으며, 49건, 652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만 타이베이 상담회에선 ▲올바름(유아과자) ▲주예다손(인절미) ▲하나바이오텍(유기질 비료) ▲안도바다영어조합법인(전복죽) ▲지나스인터네셔널(클렌징밤)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모링가 음료) ▲어업회사법인 안도고금바다(매생이 제품) ▲바다손에썬

(김부각) ▲썬글로벌인터네셔널(유아과자) ▲에코웰드팜(구강청결제), 10개 기업이 296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20일 진행된 홍콩 상담회에선 주예다손, 완도바다영어조합법인,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 지나스 인터네셔널, 올바름, 바다손에썬, 어업회사법인 안도고금바다 총 7개 기업이 356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홍콩은 아세안, 중동,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지속적인 한류열풍과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친환경농업 실천 역할 '톡톡'

### 경관보호·농경문화 보존·주민화합 등 1석 3조

전남도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촌의 자연경관 보호는 물론, 전통 농경문화 보전과 주민 화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마을단위 농업환경을 관리토록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과 컨설팅 제공, 농업환경 조사와 진단,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개인 및 공동 활동 등에 5년간 평균 6억5000만원(국·도·시군비)을 지원한다.

전남에서는 담양 청춘마을 등 총 1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 순천 곡각마을, 영암 천해마을 등은 주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농업환경은 물론, 꽃길 조성 등 마을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담양 청춘마을은 동북담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만큼 토양과 우수 보호를 포함한 농업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이 높아지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협력 활동도 부쩍 늘었다. 주민들은 또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을 만들고, 전통 농경문화 계승에도 더욱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마을 주민이 함께 농악놀이와 전통 손

모내기 시연 행사를 하며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과 참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발판 역할이 되도록 참여 마을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추진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 집중

###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면담...정부 예산 반영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최상목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광주시 주요 현안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와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등이 갖춰진

광주가 적임지"라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날 기재부 예산실도 방문해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광주시가 이날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인공지능 실증밸리 확산사업(총사업비 6000억원) ▲국산인공지능(AI)내도체 도시규모 실검증 지원센터 구축(300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235억원) ▲지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스트(GIST) 부설 인공지능(AI)연계고 광주 설립(1074억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지방비 분담 개선 ▲노후상수도 정비(900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 여야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